

신차이푸 리스트에 나타난 2013년 중국 부(富)의 지도

김동하 교수
(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과)

□ 금년 5월, 월간지 <신차이푸(新財富)>는 2013년 중국 부자 500위 순위를 발표함.

- 신차이푸는 광둥성 신문출판국 주관으로 발행되는 월간지로 2001년 3월에 창간되었으며, 심천증권거래소 산하 증권정보 포털인 취안징왕(全景網)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비중있는 경제 전문지로 부상했음.
- 신차이푸는 관방 월간지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중국 부자 500위 리스트를 공개 발표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.
- 중국 부자 리스트 원조는 영국출신 공인회계사인 루퍼트 후게베르프(Rupert Hoogewerf)가 1999년에 창간한 ‘후룬 보고서(The Hurun Report)’임.
- 1990년대 중국에서 근무했던 루퍼트는 최초 중국 부자 리스트를 1999년 포브스에 제공했다가 큰 반향을 일으키자, 본인이 ‘후룬바이푸(胡潤百富)’라는 업체를 창설하여 2002년부터 매년 독립적인 중국 부자 리스트를 공표하고 있음.

□ 중국 1위 부자는 와하하 그룹 종칭허우(宗慶后) 총재가 전년도 1위였던 왕젠린(왕다그룹)을 밀어내고 차지했음.

- 중국 최대 음료회사인 와하하 창업자인 종칭허우 자산은 700억 위안(12.6조원)으로 2위보다 29.6% 많은 규모임.
- 1987년 절강성 항저우에서 교내기업을 시작으로 와하하영양식품창을 설립하고, 1991년에 국유기업이던 항주관두식품창을 합병하여 지금의 종합식품그룹 와하하로 발전함.
- 와하하의 절대지분은 지방정부 소유였으나, 2001년 지분개편을 하면서 29.4%는 종칭허우에, 24.6%는 직원자사주로 나뉘었고, 항저우 지방정부 지분은 46%로 축소됨.
- 2012년 와하하 매출액은 636.31억 위안으로 전년비 6.23% 성장했고, 세전이익은 101.2억위안(18.19% 증가)을 기록했음.

□ 종칭허우는 신차이푸 리스트 집계 후 8번째 중국 1위 부자이며, 소비업종에서 나온 것도 처음임.

- 2003년 이후 11년 동안 공포된 리스트를 보면 부동산업 CEO가 네 번 1위를 차지했으며, 기초설비(SOC인프라)가 세 번이었고, 온라인게임, 태양에너지설비, 철강업 CEO들이 한 번 씩 중국 부자 1위로 등극한 바 있음.
- 중신타이푸의 CEO 롱즈지엔이 2003년과 2004년, 비구이위안의 여성 CEO 양

후이옌이 2007년과 2008년에 중국 최고 부자자리를 차지한 바 있음.

- 이는 부동산업이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유리한 투자중심의 중국형 경제발전구조를 방증하는 것이며, 아울러 SOC 인프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국유기업 연계형 CEO의 특세를 보여줌 .

<표> 2013년도 신차이푸 중국 부자 순위

순위	전년도 순위	재산 (억위안)	성명	회사명	주요 업종
1	11	700	종칭허우	와하하(娃哈哈)	식품음료
2	1	540	왕젠린	완다(萬達)	상업부동산, 유통, 도소매
3	4	420	류융싱	동광시왕(東方希望)	사료, 투자, 알루미늄
4	8	405.1	마화팅	팅션(騰訊)	IT, 인터넷
5	2	380	양원건	싼이(三一)	건축, 중장비기계
6	7	351.5	쉬자인	형다(恒大)	부동산
7	3	349	리옌홍	바이두(百度)	IT, 인터넷
8	9	329.8	양후이옌	비구이위안(碧桂園)	부동산
9	14	328	쉬룽마오	스마오(世茂)	부동산
10	5	300	장스펑	웨이차오(魏橋)	알루미늄, 방직

□ 2013년 신차이푸 리스트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5개 업종에 새롭게 등장한 의약바이오(33명. 총자산의 5.7%) 분야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사회 단면을 반영함.

- 2013년 500명 부호 리스트(총자산 3.57조 위안)에 최대 등재 5개 업종은 부동산, 종합, 일용소비품, 의약바이오, 정보기술·문화매체인데 이중 의약바이오는 전년도 기계·전기설비업을 밀어내고 등장한 것임.
- 최대 업종인 부동산은 총 109명의 부자가 24.2%의 자산을 점유하고 있으며, 종합(86명. 17.1%), 일용소비품(40명. 8.6%), 정보기술 문화매체(32명. 7.5%) 수준임.

□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소위 ‘국진민퇴’로 불리는 ‘국유기업 확장, 민영기업 퇴조’기조가 2013년 신차이푸 리스트에도 반영됨.

- 중국정부가 4조 위안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소비형 민간중소기업보다는 투자형 중대형 국유기업들이 혜택을 보았으며, 특히 부동산, 중공업 분야가 수혜를 입었음.
- 2013년 리스트에도 10대 부호중 부동산업종 CEO가 4명이나 이름을 올렸음.
- 최근 11년간 500위 부자의 1인당 자산액은 2009년에 처음으로 전년비 감소세(52.1→ 32.6억 위안)를 나타냈고, 2012년에도 감소세(75.3→ 61.8억 위안)를 시현한 것은 ‘국진민퇴’ 기조일 가능성이 큼.
- 자산 1백억 위안 이상 부호 수도 2009년에 17명으로 전년비(2008년 53명) 큰 폭으로 줄었으며, 2012년에도 68명으로 전년비(2011년 90명) 줄어듬.

□ 신에너지, 의류, 소매업 분야 CEO들은 수요부진과 경기의 영향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듦.

- 500위 리스트에 오른 에너지 환경분야 부자들은 전년도 26명이었으나, 2013년에는 17명으로 축소되었으며, 1인당 자산액도 41.8억위안에서 49.5억위안으로 줄어듦.
- 2006년에 150억 위안의 자산으로 중국 1위 부자 반열에 오른 태양전지 업체인 선택파워 CEO 스정롱은 부호 반열에서 사라졌음.

<표> 최근 신차이푸 중국 부자 500위 순위에서 나타난 변화

연도	자산총액 (억위안)	1인당 평균 자산(억위안)	500위 컷라인 (억위안)	자산 1백억 위안 부자(명)
2003	3031	7.6	2	0
2004	5001.9	10	2.4	0
2005	5950	11.9	3.5	2
2006	7465	14.9	4.5	3
2007	12800.2	25.6	8	15
2008	26027	52.1	13.5	53
2009	16285.6	32.6	13.4	17
2010	28756.5	57.5	19.2	68
2011	37657.4	75.3	28.7	90
2012	30921	61.8	21.8	68
2013	35786.6	71.6	30	87

□ 이러한 '국진민퇴'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신차이푸 리스트를 분석하면 민영기업들은 국유 부분보다 앞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민간 분야의 투자장벽을 해소한 최근 정책변화로 더욱 부의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.

- 2012년 자산 500억 위안 이상 부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, 2013년에는 2명이 등장했으며, 300~500억 위안 규모는 4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, 100~300억 위안 규모는 64명에서 77명으로, 50~100억 위안 규모는 154명에서 192명으로 늘었음.
- 이는 최근 미국 및 EU의 경기회복세에 민영기업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부를 획득한 것으로 해석됨.
- 중국정부는 2012년 '민간투자 36조' 규정을 공포하여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투자분야를 확대하였으며, 민영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'금융종합개혁실험구'를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파이낸싱 채널을 확대하고 있음.
- 중국정부는 2012년부터 절강성 윈저우시, 주강삼각주, 복건성 취안저우시 등을 금융종합개혁실험구로 지정하여, 소액대출공사 등 민간기업 파이낸싱 채널확대를 위한 제도와 기구 마련에 나서고 있음.

□ 2013년에도 16명이 여성이 500위 부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, 이들 중 비구이위안 부동산 그룹 CEO 양후이옌이 여성 부호 1위를 기록함.

- 양귀창(楊國強) 비구이위안 회장의 차녀인 양후이옌은 2005년 회사 주식의 70%를 양도 받았는데, 2007년 홍콩 상장사로 일거에 부호 순위에 올랐음.
- 여성부자 3위 천리화(陳麗華) 푸화귀지 그룹 CEO(자산 190억위안)는 72세로 나이가 가장 많고, 여성부자 16명의 평균 나이는 50세로 나타났음.
- 이들 여성부자들의 자산 총액은 500대 자산 총액의 4.9%를 차지했고, 100억위안이 넘는 부자는 6명이었음.
- 16명 여성부자의 1인 평균 자산은 109.5억 위안으로 500대 부자의 평균치보다 많았으며, 지난해 보다 46.7%나 늘어났음.
- 중국 부자의 주된 업종이 부동산인 것과 달리 여성부자들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, 특히 13명은 자수성가했다는 점도 큰 특징임.

□ 2003년 신차이푸 20위 안에 들었던 부자 중 2013년에도 20위권에 남아 있는 이는 류용싱, 쉬룽마오 단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중국 내 제반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음.

- 동광시왕 CEO 류용싱은 2003년에 자산 37억 위안으로 17위를(2013년 3위 420억 위안), 스마오 그룹 CEO 쉬룽마오는 48.5억 위안으로 7위를 기록했음(2013년 9위 328억 위안).

(작성자: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과 김동하 교수)

(자료: 新財富, 胡潤百富, 新華網, 人民網)

출처 링크: www.xcf.cn(신차이푸) / www.hurun.net(후룬리포트)